

[illegible]

名孝

俊会春会洙会所 亡所雄所伯欽植会重会一会植河夏会弼京会世和炳求烈岳澤台会仁輝会会

連帶와 實踐의 敎會로



해마다 새해가 되면 포부와
展望이 너무나 많고 언
제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
지 못한채 해가 바뀌는 것
이 우리들의 現實이다.

會(안)에서 信徒間の 和解나 連帶(연대)가 重要な こと(사) 아니
라 우리敎會가 同胞社會(동포사회)에
서 行(행)하는 宣敎活動(선교활동)을 해가
라면 敎會(교회)와 敎會사이의 連
繫(연계)를 斷(끊)어 버리는 結果(결과)
를 초래할 虞(있을)가 無(없)다.
今年度(今年도) 우리 關東地方會(관동지방회)
에서는 實踐(실천)하는 地方會(지방회) 나
가려는 決意(결의)입니다. 이 모든
일을 完(완)수하여 이루어 나가려면 信

帶가 가장 重要하다는 事實입니다. 특히 큰 教會가 自
己敎會中心을 떠나서 작은敎
會 徒들이 主안에서 하나가 되
고 教會間의 連帶를 이룩해
갈때 그期待와 展望은 밝은

의 몸인 敎會의 빛을 同胞
社會에 비추시기 바라면서 새
해의 小見을 말씀드립니다。
敎會는 世上과 敎會의 主
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中部地方会長 黄 義 生



中部地方회는 지금 岐阜敎
會와 浜松伝道所가 無敎中이
며 桑名敎會도 朴命俊牧師님이
高血圧으로 入院해서서 当分
間 活動을 못하게 되셨으니
심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런故로 今年의 目標는 첫
세는 敎役者를 적어도 一
은 靖聘하는 일이며, 둘째
는 各敎會가 서로 아홉을 共
하는 肢體精神을 자라게 하
는 일이다. 그래서 後任敎
役者가 赴任할 때까지 浜松
道所는 豊橋敎會가 衆名敎
會인 名古屋敎會가 札
押引導와 協力하게 되었다. 한
敎會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敎會가 그것을 自
己의 敎會가 共有하여 地
方會가 아홉으로 共有하
는 것이다. 自己敎會만 생
각하는 敎會에 고이름에서
地方會는 죽게 될 것
이다. 中部地方會는 肢
體精神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일을 克服하고 나
가며 더 나아가서는 前
進의 契機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뜻과 힘을 모아 전진하는 해

婦人会全国連合会会長 慶 恵 重

신교 七十주년도 지나고,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출발
하게 된 오늘, 작은 일에 충
성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
어 드리고자 하는 부인연합
회는, '신교'라는 큰 표지를 새
우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
된 열매를 맺어 보고 합
심하여 기도하는 중입니다.
신교는 주님의 명령을 따
라 「니회는」가서 모든 족속
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모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
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
키게 하라 붙여마다 세상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
으리라 하시니라」(마태 28장)
성경말씀과 같이 「자식」세
대를 위하여 주님의 부름만
자를 삼아「주님의」부름하
는 것을 가르치라」즉 신교
는 다른 사람이 하기를 기
다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이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신교의 중요한 것
은 자기의 지식이 아닌 것
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을 전담하는 연합만이 우리
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로 알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신교의 사명감 각
당분수 있는 나 자신과 부
인회 회원이 되기를 소원합
니다.

하나님이 한사람을 생육하
는 신교의 사명에서 열매를
맺음때 교회 부흥과 기쁨은
배가될 것입니다. 연합한 사
람에게 주신 사명은 나 자
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해를 맞이하여, 미움을 새
롭게 하면서, 목회에 관하여
스스로 반성하며 새로운 방
향을 지향하면서 몇가지 소
감을 쓰고자 합니다.

첫째, 목회와 할때 목사의
자세가 크게 문제시되어야
하겠다. 즉 목사의 사명감인
것이다. 이것은 언제나 사명
감이 있다고 전해지고 이야
기하기 쉬우나 언제나 사명
감에 대한 스스로의 깊은반



목회에 대한 몇 가지 소감

西南地方会長 최창화

회에는 오랑제단 목회하고 있는
의 심방하지 않고 그 가
정적의심정을 안다고 자인하기
쉬우나 성도의 가정생활은
극변하는 사회와 같이 변천
하여가며 그 변천에 따르는
신앙적 뒷바침을 열심히 하
여야 되리라고 믿는 것이다.
물세, 목회의 스스로의 반
성을 위한 기탁하는 비판
충고가 교역자회의에서 충출
히 제기되어 토론하며 권고
하며 때로는 위로 격려하는
교역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
각한다. 교역자회가 다만 천
목의 장수라면 목사 스스로
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제가 개교회와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교역자는 목사로서
의 장수였다. 많은 것을 배
웠다. 또 스스로를 변형시키
주었던 것이다. 충직은 의무
였다.

오늘날 우리교회 각지방교
역자회가 얼마나 진지하게 스
스로 목사자신을 개발 반성
하여 가는데 이바지하고 있
는가 돌아켜 볼 필요가 있
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도들
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목
사로 되어지리라 믿는 것이
다.

셋째, 개교회주의를 생각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본다. 개
교회중심으로 생각하는 생각
이 너무나 강한 것 같다. 한국
교회와 비교하면 우리총회는

보다 넓은 것이었지만 먼저 교역자 자신이 개교회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만 하리라 생각한다. 믿음의 공동체, 특히, 본에 살고 있는 동포의 특수성을 생각할때 개교회로부터 좀 넓은 지역교회, 또는 지방교회의 생각으로 발전시켰으면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극변하여 가는 사회에 대응하여야기 쉬운 것이다. 개교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이라도 지역교회, 지방교회가 연합하면 충분히 일할수 있게 될것이라 믿는다.

이와같은 생각은 교역자회, 지방회, 총회에서 심숙히 토론되어야 하며 또 성도들에게 충분히 이해하도록 토론, 협의의 거쳐야되리라 믿는다. 이것은 총회헌법의 기초인 지방회중심이라는 생각을 구체화하는 길도 되리라 믿는다. 이렇게 됨으로써 한교회—한목사라는 생각은 자연히 바뀌어지게 될 것이며, 몇교회—한목사, 한교회—몇목사라는 현실이 나타나게 되리라 믿는다.

넷째, 총회적으로 수차로 논의되었으나 아직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동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많은 교역자가 선교 사업에 참여되어야 하리라 본다. 그와 반대로 동포수가 적은 지역교회는 몇교회에 목사한명이 책임지고 선교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집중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 명의 성도 인내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시골교회에서 연년건조하여도 한명의 성도를 얻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시골교회 목사는 선교사업에 노력하지 않은 것같은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라 본다.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숫자로 나타나는 결과와는 좋지 못하였다는 것뿐이다.

지역의 특수성, 목사의 특수한 기능 발휘, 교역자생활의 보장을 위한 제도 등은 사회적, 과학적 연구를 계속하였으면 한다.

지역교회 또는 지방교회로 활동하여 경제적, 정치적, 선교적 역할을 함께하여 가는 데서 지역의 특수성, 목사의 기능 발휘, 교역자생활 보장 등을 해결하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년전, 구체적으로 포꾸라오리로 후꾸오교회의 합동을 생각하여 검토하였을 때도 있었으나 결국 실현치는 못하였다. 이 생각은 아직 검토해볼 만하다고 믿는다. 또 좀더 나아가 지방교회전체합동을 생각하여 보았으면 한다. 지방회중심성을 구체화하여 경제적, 정치적, 선교적 역할을 다 함께 참여하여 안한 교회를 삼리고 선교사들을 충실하다 하였으면 생각하는 바이다.

모아 고대합니다. 나 자신은 일본에 오게 된 일과 수년 간의 생활을 회고한다면 부끄러울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의 사실은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선교의 길은 험난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쓰라림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선교의 사명을 받은 자로 쓰라림도 감사로 바꾸어 남는 나의 생을 가코저 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사명을 주실 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을 굳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나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전속 교회 부인회 한 사람만 사람이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새로운 표어를 찾아 여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신교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長 名 牧 老 師 師 鄭 林 韓 敬 学 在 子 周 秀										大 阪 北 部 教 會										西 成 教 會										長 講 牧 老 師 師 金 羅 金 正 曾 元 淑 漢 秋 中 憲 秋 化 玉 道 弘 成										隱 退 長 老 文 劉 金 姜 吳 金 金 金 尹 金 金 昌 時 容 南 在 京 郡 官 用 安 德										大 阪 教 會										牧 師 金 德 化										京 都 南 部 教 會										長 名 牧 老 師 師 文 金 金 金 金 曹 俞 金 田 楊 沂 德 載 昌 昌 畢 錫 在 永 炯										新 儀 教 會										京 都 教 會										長 牧 老 師 徐 金 永 顯 均 球										大 垣 教 會										長 名 牧 老 師 金 金 再 炳 龍 洪										岐 阜 教 會										長 名 牧 老 師 徐 金 朴 趙 徐 鄭 黃 又 光 憲 元 載 榮 義 春 洙 燮 國 照 禧 生										名 古 屋 教 會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京都教会堂會員夫婦一同

曹長老信仰生活
50年祝賀会
京都教会

表彰받은 十名 중에 京都敎
會에서는 曹畢律長老가 表彰

본총회는 宣敎七十周年을 맞이하여 五十年間 信仰生活을 해온 十名の 信徒에게 지난 十月十日 宣敎七十周年記念式典에서 表彰하였다.

받아 京都教會信徒들은 表範
받은 曹長老를 祝賀하여 기
쁨을 나누었다. 더욱히 京都
教會堂會에서는 曹長老의 信
仰生活五十年을 축하하며 민
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각
方面에서 많은 活躍을 하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같이 記
念이 되도록 堂會員一同의記
念写真을 찍어 教會가
으로 贈呈하였다.

曹長老는 京都教會의 모든
信徒들이 기쁨을 같이 하여
중에 각격, 記念으로 牧師와
司會하는 長老用과 獻金當番
執事用의 가운 七벌을 獻納
하였다. 曹長老는 昭和初年에
渡日하여 入信한후 日帝의탄
압앞에서도 꾸준히 믿음으로
жив었다.

曹長老가 꾸준히 믿음으로
키오고 가정은 믿음의 가정
으로 꾸며운데에 夫人 李順
梅女史의 공도 매우 크다.
李順梅女史는 義城에서 入教
한후 오늘날까지 꾸준히 믿음

의 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京都敎會會長夫人會々長、京都敎會婦人會々長、京都敎會執事、敎會學士、아니라 교포사회에서도 京都大韓婦人會本部副會長 등 京都의 동포사회의 女性界의 重鎮으로서 많은活躍을 하여왔다.

曹長老를하에는 七男妹가있는데 모두 各分野에서 指導的인 역할을 담당하고있다.

長男 永信氏는 京都敎會의執事、讚揚隊指揮者로서 奉仕하며 會社에서도 重責을 맡고있다. 次男 永友氏는 建築士三男 永吉氏는 技術士、말은 向上社保育團主任保母이며、讚揚隊員으로 奉仕하고있다. 그리고 만사위는 미국에서 대학교수이며, 둘째사위는 가나다토론도韓人敎會의 長老이며, 셋째사위는 로스앤젤레스에 서 쿠퍼타드博士이며 大學敎授資格도 갖고 있다.

曹長老는 친손 외손한하여十二名の 한이비지이기도하다

金セレナ迎え
フェスティバル
関西 Y M C A

関西韓国YMCA（代表理事
京秋校長）主催のフェスティ
ルが、一月十日、大阪・サン
イホールで開かれ、YMCAの
役員、教会関係者、同胞たち約
余名が詰めかけた。

四時三十分の開場。一階ロビ
では、韓国特産品のバザーが
階ロビーでは、写真で見るY
CAが展示され、YMCAの
動と必要性を同胞たちに強く
えた。

韓服で主装したYMCA理事

KCC新年礼拝案内

KCC의 신년예배가 지난
 一月八日 大阪教会와 地域의
 信徒 그리고 教役者 約三十
 余名이 모여 KCC에서 있
 었다.
 兪錫淸理事長의 司會로 進
 行된 新年礼拜는 尹宗銀牧師
 의 說教 金元治牧師가 祈禱
 金德成牧師의 祝禱로 끝마쳤
 다.
 午後에는 KCC実行理事會
 를 가져 새해를 맞이하여 K
 CC의 活動을 더욱 적극적
 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 ◇ ◇
 住所와 電話番号變更
 ◎沈恩澤伝道師
 東京教会新築으로 다음住所
 로 移會하였음.
 東京都渋谷区代々木三丁一五
 一—二
 ◎京都南部教会
 電話變更
 ○七五 六九一—○六九六
 ◎武庫川教会
 電話變更
 教会：四一九—五一九五
 牧師：四一九—五一六二三

第7回生野区民
크리스마스盛況

十二月十六日(土) 中川小学校
第七回生野区民 크리스마스
에 地域住民 千余名이 모
여 盛大히 舉行되었다.
生野地域の 教会와 団体가
中心이 되어 生野区民 크리스
마스実行委員會를 組織하여서
在日韓国人 日本人이 많으
기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
생을 축하하는 大阪의 名物
이 된 크리스마스는 김주남
· 박소유 두분의 사회로 진
행되었다.

います。そして伝道キャラバン隊を編成し、教会形成の一環を実際にこなうプログラムも計画しています。しかしまた私達は教会を守る努力とともに、新しい教会を創造する努力も怠ってはいけません。主日学校教育、同胞の実態を知る努力(学習会)と実践を通して、新しい教会のあり方を考えていけるでしょう。ともかく個々の青年会の実情に応じた取り組みを考えていかねばならない時期にきていると思います。そして全協としましては、現在、京都南部、大阪、横浜、川崎などの諸教会でこんな

われている、同胞民衆との接点を求め、解放を志向していく地域活動(어머니학교、子供会、塾活動、行政闘争)を全協運動のなかで位置づける努力とともに、民衆に根ざした運動の拡大と強化をめざ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そして地方会としての参加のあり方も模索しているところ です。

教会青年は今後、これらの事柄に積極的に参加することが要請されています。「地の塩」たるべく堅実な歩みが要求され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生野区民크리스마스

즐거운 순서가 진행됨에 따라 장내의 분위기는 열기에 피어났으며 KCC舞蹈클럽의 韓國舞蹈는 모인 청중들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크리스마스답게 청중이 하나도 없어서 놀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노래하며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축하했으며 치나카 신부와 山本신부가 분장한 산타가 등장하자 모인 아이들은 산타를 보고자 뒤흔들었다.

地域敎會와 商店들의 後援으로 四十六萬五千円의 募金이 나왔다.

たちの案内で、会場の席について
は一段と高まった。

生野区民クリスマス

[illegible]

韓国に連帯機構設立決定

文金 金李 崔 金
鳳崇 教基 教昌 教道
錫植 會鉉 會華 會植

李 聖 柱 保 安 秉 玟 傳 道 所 教 會 教 會



武庫川教会新築完工

基督敎會館
麥仁道
李淸植
崔忠植
洪智植

金朴李 金李 慶 全國 襄李
Y M C 正省 協 惠 重仁
秀秀處 男展 議 重 連 度夏
A 會 合 會

正初査経会盛況

西南地方会

全協指導研開催

李 聖 柱 傳 道 所 安 秉 玳 三 金 得 合



大平首相と三月交渉

基督教会館

문 후지요시	崔李麥 忠清仁 植一道	康金安崔 恩芳道京 弘植宣植	事務所
-----------	-------------------	----------------------	-----

〈西南地方會〉

宇部教會 牧師 金承俊	下関教會 牧師 申鉉道	小倉教會 牧師 崔昌植	福岡教會 長老 李基宗	折尾教會 牧師 金榮燮	熊本教會 名譽長老 金鳳象 牧師 吳羽錫	佐世保傳道所 長老 安秉得	沖繩教會 牧師 李聖柱
總會事務所 幹事 崔安京 宣教師 康恩弘	在日韓國基督教會館 主任幹事 李清一 幹事 崔忠植	在日韓國人問題研究所 所長 李重夏 主事 裴重慶	婦人會全國連合會 會長 慶惠重	青年會全國協議會 代表委員 李正展 總務 金正男	在日韓國YMCA 總務 李處權 幹事 朴秀夫		